

한국교육시설학회 제3회 학생공모전 심사 후기: 정체성의 확립 단계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의 단계로 향한 발돋움

The Whole Process of the 3rd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구 본 덕 / 정회원,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Ku, Bon-Deok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bdku@ynu.ac.kr

2010년도에 개최된 한국교육시설학회의 제1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3년이 지난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우선 공모전의 주제를 보면 제1회 「우리들의 학교건축」, 제2회 「내일의 학교건축」에 이어 금년에는 「변화하는 학교」로 설정되었다. 3년 전의 첫 공모전에도 그랬듯이 3회에 접어든 이번 공모전의 경우도 역시, 아직은 범위를 좁혀 특정한 주제를 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를 정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 주제설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시설디자인 공모전을 다른 여러 공모전들과 차별화시키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설계의 내용적 범위도 아직까지는 교사건축이 주가 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도 공감이가 간다. 이제 공모전의 연륜이 더해지면 주제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설계의 범위도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년도에는 총 276팀이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142팀이 완성작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2010년의 1회 공모전에 제출된 272작품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작년의 제출 작품수와는 비슷한 규모이며 앞으로도 150에서 200팀 정도의 작품이 매년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금년의 심사위원으로는 필자를 포함하여 문창호(군산대), 김종규(한국예총), 임종엽(인하대)의 4분 교수와 한은주 공간지 편집장이 참여하였다. 이상의 5분 심사위원은 약 7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적으로 입선작을 포함하여 총 60작품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듭하면서 이 중에서 대상 1작품,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3작품, 장려상 5작품, 그리고 특선 10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의 내용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5분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였다. 즉,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적 아이디어와 개념, 건축적 콘텐츠, 그리고 파넬과 도면의 기본적인 표현 수준이 그것이다.

제출된 작품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학생들의 작업결과물 이기에 표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모전의 주제처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다운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와 기존의 교육시설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형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실험정신이 담겨진 좋은 안들이 많이 보였다.

학생작품이 위주가 되는 공모전의 심사에서 흔히 고심하게 되는 점 중의 하나는, 완성도가 높고 세련된 표현을 한 작품에 가산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학생다운 아이디어에 더 비중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번 심사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남게 된 2작품에서 이러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되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마을풍경을 담은 학교」의 경우, 해당지역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대지의 특성을 지형적으로 잘 살렸고, 기존의 경사주거지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선의 처리 등이 돋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손 스케치를 활용하여 아날로그적 표현이 가미된 서정적인 표현도 학생다운 소박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깝게 최우수상에 머문 「UEF」의 경우, 철원소재 노동당사를 리노베이션하여 학습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직교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내부의 중정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적 연출을 보여주는 능력이 돋보였다.

이 외에도 학생다운 참신한 생각과 개념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있었으나 설정한 개념을 끝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거나 표현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우수상과 장려상 등에 머문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2010년도에 시작된 교육시설학회 공모전이 3년이라는 연륜을 쌓아가는 동안 이제 그 정체성을 점차 확립해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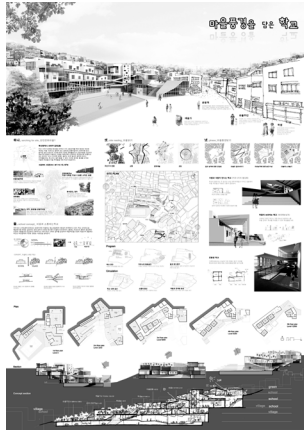
있다고 여기며, 금년부터는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모전 그 자체는 물론, 여기에 출품된 우수한 작품들과 신선한 아이디어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과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안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금년의 제 4회 공모전에서는 더욱 좋은 작품들이 보다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대한 심사평]

▶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마을풍경을 담은 학교
안창원(한밭대)

이 작품은 해당지역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대지의 특성을 지형적으로 잘 살렸고, 기존의 경사주거지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선의 처리 등이 돋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손 스케치를 활용한 아날로그적 표현이 가미된 서정적인 표현도 학생다운 소박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지의 경사를 과도하게 훼손한 듯이 보이는 단면계획과 표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고살길 초등학교 이야기)104마을 고살길 초등학교 이야기
이광현, 경동규, 임원재(광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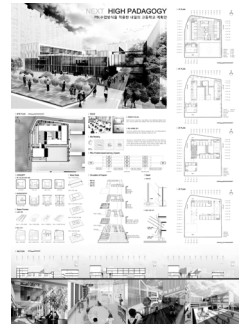
아이디어가 좋고 공모전의 주제와도 적합한 작품으로, 특히 배치개념과 주변마을에 대한 분석이 좋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작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특히 외관에 대한 이미지 표현이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



▶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NEXT HIGH PADAGOGY
백선기(한밭대)

PBL 수업방식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한 배경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PBL 수업방식을 공간적으로 반영하는 단계에서 세부적 아이디어의 도출과 건축적 발전이 미흡한 점이 단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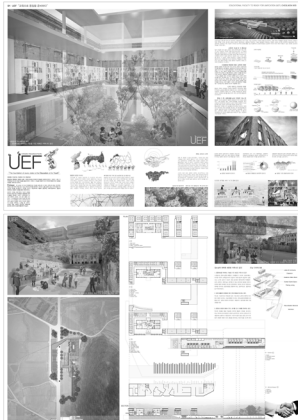


▶ 최우수상(한국교육시설학회장상)

UEF

민건호, 오영범, 김승일(세종대)

이 작품은 철원소재 노동당사를 리노베이션하여 학습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재구성한 작품이었다. 경직되어보이기 쉬운 직교체계를 사용하면서도 내부의 중정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간적 연출을 보여주는 능력이 돋보였고 CG를 포함한 전반적인 표현의 기법도 세련된 작품이다. 다만 평면의 표현스케일이 다소 작아 도면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 우수상(대한건축학회장상)

(DO : Dream School)

박민주, 박수현, 박다보미(공주대)

공간의 표현에 대한 아이디어가 참신하였고 건축적 표현으로도 적절히 연결된 좋은 작품이었다. 다만 기성건축가들의 작업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다소 유행적인 형태개념이라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